

01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거시경제의 단기 균형과 관련한 다음 분석 중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한다.
- ② 정부가 산출량 안정을 도모하려면 총수요 축소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산출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④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거시 인플레이션의 유형 A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① 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실업률은 상승한다.
- ② 정부가 총수요 축소 정책을 실시하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AS곡선이 좌측 이동한 상태에서 AD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량이 더욱 감소한다.
- ③ 재정정책은 AD곡선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만약 AD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물가는 안정될 수도 있으나 산출량이 더욱 감소하게 되며,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산출량은 안정될 수도 있으나 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산출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공급을 늘려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량은 더욱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02 A국의 총수요는 200억 달러이며 장기생산량 수준은 300억 달러이다. A국 총수요 구성 항목 중 소비를 제외한 구성항목은 독립지출이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으며 한계소비성향은 1/2이다. 아울러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정부가 장기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고자 할 때, 증가시켜야 할 재정지출 규모는? (단, 조세는 정액세로 가정한다.)

서울시 7급 2015

- ① 25억달러
- ② 50억달러
- ③ 100억달러
- ④ 200억달러

거시 승수효과 A

- i) 현재 A국의 총수요는 200억 달러이고 장기 생산량 수준이 300억 달러 이므로 생산량 수준을 100억만큼 늘려야 한다.
- ii) 현금이 없는 경우의 통화승수
$$m = \frac{1}{z} = \frac{1}{0.5} = 2$$
이다.
- iii) $M = m \times H$ 이고, $M = 100, m = 2$ 이므로 증가시켜야 할 재정지출 규모는 50억 달러이다.

03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 경제의 실질 GDP(Y)가 5,000인 경우, 균형 실질 금리는 몇 %인가?

서울시 7급 2015

$$Y = C + I, \quad C = 500 + 0.6Y, \quad I = 2,000 - 100r$$

(r 은 실질금리이며 %로 표시)

- ① 2%
- ② 5%
- ③ 10%
- ④ 20%

거시 국민소득결정모형 A

- i) $Y = 500 + 0.6Y + 2,000 - 100r$
- ii) $0.4Y = 2,500 - 100r$ 이고 $Y = 5,000$
 $100r = 500$
- iii) $r = 5\%$ 이다.

04 다음 표는 각각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상 점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화는 X재와 Y재만 존재한다.)

서울시 7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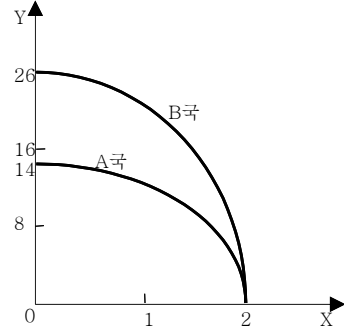
X재	0개	1개	2개	X재	0개	1개	2개
Y재	14개	8개	0개	Y재	26개	16개	0개

<A국 생산가능곡선상의 조합> <B국 생산가능곡선상의 조합>

- ① X재를 1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적다.
- ② A국이 X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재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 ③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의 생산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
- ④ B국이 X재를 1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미시 생산가능곡선 B

- ① X재를 0개에서 1개로 생산을 늘릴 때, A국은 Y재를 6만큼 포기해야 하지만 B국은 Y재를 10개만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X재를 1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B국이 더 크다.
- ② A국이 X재를 0개 생산한다면 Y재를 최대 14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 ③ 생산가능곡선이 B국이 원점에서 더 멀리 있으므로 B국의 생산기술이 A국보다 우수하다.



- ④ B국에서 X재를 0개에서 1개로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재가 10개이고, X재를 1개에서 2개로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재가 16개이다. 따라서 X재를 한 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05

외부로부터 디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하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의 거시경제 균형에 대한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폐쇄경제모형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 ②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는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다른 충격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는 수출이 감소한다.
- ④ 교역상대국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려는 ‘환율전쟁’ 국면으로 접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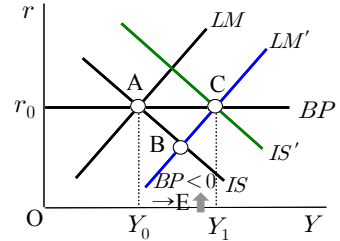
국제 맨델-플레밍 모형 A

정석 맨델-플레밍 모델(Mundell-Fleming Model)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에($i = i^*$)

1. 고정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은 효과있고, 금융정책은 효과없다.
2.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은 효과없고, 금융정책은 효과있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의 통화정책의 효과



- i)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할 때,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ii) 최초 A점에서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B점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 iii) B점은 국제수지균형선(BP)선 아래에 있으므로 국제수지 적자이다. B점에서 국제수지 적자이면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순수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 iv) C점에서 새로운 국제수지 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IS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이자율은 최초 r_0 수준으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06 전직 프로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15만원 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하였는데 그 결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또는 손실)과 경제적 이윤(또는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서울시 7급 2015

- ① 회계학적 이윤 30만원, 경제적 이윤 30만원
- ② 회계학적 이윤 15만원, 경제적 손실 15만원
- ③ 회계학적 손실 15만원, 경제적 손실 15만원
- ④ 회계학적 손실 15만원, 경제적 손실 15만원

미시 경제적 이윤 **D**

- ★ i) 회계적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
총수입은 30만원의 수확이고 명시적 비용은 15만원어치의 씨앗이므로 회계적 이윤은 $30-15=15$ 만원이다.
- ii) 경제적이윤=총수입-명시적비용-암묵적비용
총수입은 30만원, 명시적 비용은 15만원, 암묵적 비용은 골프레슨을 하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인 $3만원 \times 10시간 = 30만원$ 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30-15-30=-15만원$, 즉 15만원의 손실이다.

07 수요곡선의 식이 $Q_1 = \frac{21}{P}$ 일 때, 이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서울시 7급 2015

- ① 0
- ② 0.42
- ③ 1
- ④ 1.5

미시 수요의 가격탄력성 A

- ★ i) 수요곡선의 식이 $Q = \frac{k}{P}$ 형태라면 이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직각쌍곡선이다.
- ii)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08 두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묶음을 찾는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두 재화 간의 한계대체율과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 ② 한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는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그 재화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 ③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의 경우 한계대체율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 ④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모두 종전의 1.5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할 때, 예산제약선은 원점에서 더 떨어진 위치로 평행 이동한다.

미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A

정석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1.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begin{aligned} & \text{Max } U(x, y) \\ & \text{s.t. } P_X \cdot x + P_Y \cdot y = M \end{aligned}$$

2. 효용극대화조건

$$MRS_{XY} (= \frac{MU_X}{MU_Y}) = \frac{P_X}{P_Y}$$

💡 ①②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MRS_{XY} = \frac{P_X}{P_Y}$ 이

므로 두 재화간의 한계대체율과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③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의 경우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

정석 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

모든 재화의 가격과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할 때, 이는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begin{aligned} (1+a)P_X \cdot X + (1+a)P_Y \cdot Y &= (1+a)M \\ \Leftrightarrow P_X \cdot X + P_Y \cdot Y &= M \end{aligned}$$

④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모두 1.5배로 상승할 때, 예산제약선은 변하지 않는다.

09 철수는 서울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한다. 저축예금의 이자율이 1년에 10%이고, 물가상승률은 1년에 5%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50%가 부과된다고 하자. 이 때 피셔(Fisher) 가설에 따를 경우 이 저축예금의 ‘실질 세후’(real after tax) 이자율은?

서울시 7급 2015

- ① 0%
- ② 2.5%
- ③ 5%
- ④ 15%

거시 피셔방정식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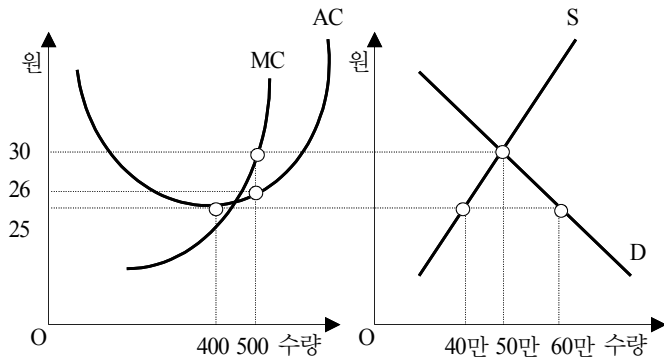
Advice 피셔방정식을 이용하여 세전명목이자율을 구한 다음, 소득세율이 주어졌으므로 세후명목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피셔방정식에 대입하여 세후 실질이자율을 구한다.

☞ i) $r_{at} = (1 - t)i - \pi$

ii) 세후 실질이자율 = 세후 명목이자율 - 5%
= (1-0.5)×10% - 5%
= 0%

10 다음 왼쪽 그래프는 완전경쟁시장에 놓여 있는 전형적 기업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단기의 완전경쟁시장이다. 이 시장이 동일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는 몇 개의 기업이 조업하겠는가?

서울시 7급 2015



- ① 800개
- ② 1,000개
- ③ 1,250개
- ④ 1,500개

미시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A**

- ⚡ i) 단기의 완전경쟁기업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면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고 있다.
- ii)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면 장기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발생하여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즉, 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iii) 신규기업의 진입은 기업의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므로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점은 평균비용의 최소점이 된다. 개별기업의 장기생산량은 400이 된다.
- iv) 가격이 25가 될 때까지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시장생산량은 60만이다.
- v) 시장전체의 수량이 60만이고 하나의 기업의 생산량이 400이므로 1,500개의 기업이 조업한다.

11 통화정책의 단기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 ②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 ③ 임금조정의 신축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 ④ 한계소비성향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거시 IS-LM곡선의 기울기와 정책효과 A

정석 IS-LM곡선의 기울기

IS곡선 기울기	LM곡선 기울기
$\frac{1-c}{I_R}$	$-\frac{L_Y}{L_R}$

② I_R 이 클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작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12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조세와 국채발행 간 차이가 없다.
- ②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소비자들이 근시안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프리드만(M. Friedman)의 항상소득이론이 성립하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시 리카르도 대등정리(RET) B

- ★ ④ 리카르도 대등정리(RET)는 항상소득가설이 성립해야 성립한다.

13

어느 한 국가의 생산함수가 $Y = K^{\frac{1}{2}} L^{\frac{1}{2}}$ 이며 40,000단위의 자본과 10,000단위의 노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국가에서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연 10%라고 한다면, 솔로우(Solow) 모형에 따를 때 주어진 자본/노동 비율이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의 자본/노동 비율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인구변화 및 기술 진보는 없다고 가정)

서울시 7급 2015

- ① 20%
- ② 30%
- ③ 40%
- ④ 50%

거시 솔로우(Solow) 모형 A

정석 균제상태(steady state)

1. $sf(k) = (n + \delta + g)k$
2. $\hat{k} = \hat{y} = 0, \hat{K} = \hat{Y} = n$

★ i) 1인당 생산함수 $y = \sqrt{k}$ 이고,

$$k = \frac{K}{L} = \frac{40,000}{10,000} = 4, \quad n = 0, \delta = 0.1, g = 0 \text{ 이다.}$$

ii) 균제상태에 $sf(k) = (n + \delta + g)k$ 을 만족하므로

$$s\sqrt{k} = 0.1k$$

$$s^* = 0.1\sqrt{k} = 0.1\sqrt{4} = 0.2$$

14

다음 중 경기변동 및 집계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용어 중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잠재총생산과 실제총생산의 차이로부터 정의되는 총생산 갭과 경기실업 사이의 역의 관계는 피셔방정식으로 서술된다.
- ②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명목이자율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시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명목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나타낸 것은 필립스곡선이다.
- ③ 통화량의 변동이 실물변수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명목변수만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때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 ④ 동일한 화폐금액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한 크기의 구매력을 가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자동안정화장치라고 부른다.

거시 고전적 이분법과 화폐중립성 C

- ⚡ ③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때, 명목변수인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물변수인 실질GDP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명목변수인 물가만 상승한다.

15 A국에서는 X재 1단위 생산에 10의 비용이 필요하고 Y재 1단위 생산에 60의 비용이 필요하다. B국에서는 X재 1단위 생산에 15의 비용이 필요하고 Y재 1단위 생산에 100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②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③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두 재화 모두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어느 재화의 생산에도 비교우위가 없다.
- ④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어느 재화의 생산에도 비교우위가 없고, B국은 두 재화 모두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국제 비교우위론 A

Advice Table의 행에 국가(사람)를 쓰고, 열에 재화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일관되게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헛갈리지 않고 일관되게 분석하는 요령이다.

	(X재)	(Y재)	P_X/P_Y	X재 1개당 Y재
(A국)	10	60	1/6	A국 Y재 비교우위
(B국)	15	100	3/20	B국 X재 비교우위

- ② B국에서 X재의 기회비용이 A국보다 작기 때문에 B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A국이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정석 비교우위 vs 절대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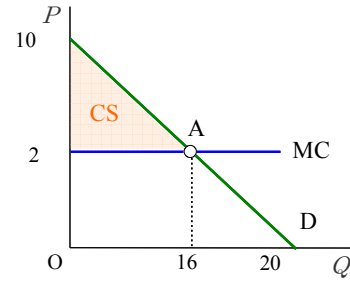
1. 두 재화 모두 비교우위는 불가능하다.
2.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는 가능하다.

16 통신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완전독점시장을 가정하자. 이 독점기업의 총비용(TC) 함수는 $TC = 20 + 2Q$ 이고 시장의 수요는 $P = 10 - 0.5Q$ 이다. 만약 이 기업이 이부가격(two part tariff) 설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고정요금(가입비)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가?

서울시 7급 2015

- ① 16
- ② 32
- ③ 64
- ④ 128

미시 이부가격제 **B**



- ★ i) 이부가격제(two part tariff)에 의하면 가격과 한계비용과 같을 때까지 판매를 하고 그 점에서 소비자잉여만큼을 가입비로 받는다.
- ii) $P = 10 - \frac{1}{2}Q = 2 = MC$ 에서 $Q = 16$ 이다. 이 때 소비자잉여는 그림의 삼각형부분이 된다.
- iii) 소비자잉여 $= \frac{1}{2} \times 8 \times 16 = 64$

17 다음과 같은 직진게임(두 운전자가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직진 운전하다가 한쪽이 겁을 먹고 회피하면 지는 게임)을 고려하자. 각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만족도)은 다음과 같다 [보상테이블은 (A, B)의 쌍으로 표시됨]

		운전자 B	
		회피	직진
운전자 A	회피	(10, 10)	(5, 20)
	직진	(20, 5)	(0, 0)

‘운전자 A’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우월전략이 없다.
- ② 운전자 A는 항상 회피를 해야 한다.
- ③ 운전자 A는 항상 직진을 해야 한다.
- ④ 운전자 A는 2개의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시 게임이론 A

① A의 우월전략

		B	
		회피	직진
A	회피	10	5
	직진	20	0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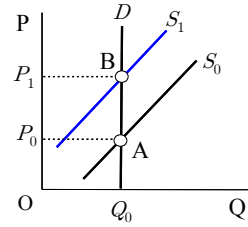
- ④ B가 회피전략을 선택하면 A는 회피전략을 사용할 때의 보수 10보다 직진전략을 사용할 때의 보수 20이 더 크기 때문에 직진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다.
- ⑤ B가 직진전략을 선택하면 A는 직진전략을 사용할 때의 보수 0보다 회피전략을 사용할 때의 보수 5가 더 크기 때문에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다.
- ⑥ B기업의 전략에 따라 A기업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이 달라지므로 A기업은 우월전략이 없다.

18 X재 수요곡선은 가격탄력성이 0인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시장거래량은 감소한다.
- ② 생산자 잉여는 변화 없다.
- ③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변화 없다.
- ④ 공급자가 물품세를 납부하고 실제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미시 조세부담의 귀착 **A**



- 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수직인 수요곡선) 조세를 부과해도 시장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변화가 없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조세부담은 모두 수요자(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조세부과액만큼 상승한다.
- ④ 조세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공급자가 실제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19 외부효과(또는 외부성)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7급 2015

- ①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 ②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 ③ 시장 실패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와 경우에도 발생한다.
- ④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

미시 외부효과 A

정석 외부효과

	소 비(MB)	생 산(MC)
부정적 (과다)	$SMB < PMB$	$PMC < SMC$
긍정적 (과소)	$SMB > PMB$	$PMC > SMC$

Advice 외부효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적이면 과다소비, 과다생산이고 긍정적이면 과소소비, 과소생산으로 기억하자. 소비에서 한계편익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부정적 외부효과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낮고 긍정적 외부효과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높다. 생산에서 한계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부정적 외부효과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높고 긍정적 외부효과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낮다.

- ★ ④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20 쌀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어떤 나라의 상품가격과 생산량이 다음 표와 같다.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1년과 2012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각각 얼마인가?

서울시 7급 2015

	쌀		자동차	
	가격	생산량	가격	생산량
2010년	20만원/가마	100가마	1,000만원/대	2대
2011년	24만원/가마	100가마	1,200만원/대	4대
2012년	30만원/가마	200가마	1,500만원/대	4대

2011년	2012년
① 83.33%	66.67%
② 120%	150%
③ 150%	200%
④ 180%	300%

거시 GDP 디플레이터 vs 소비자물가지수(CPI) **A**

정석 *GDP Deflator*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 \frac{P_1 \cdot Q_1}{P_0 \cdot Q_1} \times 100$$

★ i) $GDP Deflator(2011) = P_P = \frac{P_1 \cdot Q_1}{P_0 \cdot Q_1} \times 100$

$$= \frac{(24 \times 100) + (1,200 \times 4)}{(20 \times 100) + (1,000 \times 4)} \times 100$$

$$= \frac{2,400 + 4,800}{2,000 + 4,000} \times 100 = \frac{7,200}{6,000} \times 100$$

$$= 120$$

ii) $GDP Deflator(2012) = P_P = \frac{P_1 \cdot Q_1}{P_0 \cdot Q_1} \times 100$

$$= \frac{(30 \times 200) + (1,500 \times 4)}{(20 \times 200) + (1,000 \times 4)} \times 100$$

$$= \frac{6,000 + 6,000}{4,000 + 4,000} \times 100 = \frac{12,000}{8,000} \times 100$$

$$= 150$$

Quick Solution

복잡한 계산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문제에서 쌀의 지출액과 자동차의 지출액이 같으므로 가중치는 1/2씩 동일하다.

- i) 2011년에는 2010년보다 쌀 가격이 20%, 자동차 가격이 20% 올랐으므로 물가가 20% 올라서 GDP 디플레이터가 120이 된다.
- ii) 2012년에는 2010년보다 쌀 가격이 50%, 자동차 가격이 50% 올랐으므로 물가가 50% 올라서 GDP 디플레이터가 150이 된다.